

제주연구원

**중국 하이난 해양경제 국제 역량 강화 세미나 및  
해양경제청년대화 참석  
공무출장 결과 보고서**

2024. 4.

# 목 차

I. 출장개요 .....	1
1. 출장 목적 .....	1
2. 출장 지역 .....	1
3. 출장자 .....	1
4. 출장 일정 .....	2
5. 방문 기관 소개 .....	3
II. 출장내용 .....	4
1. 제3차 RCEP 협력체계 하의 중국-아세안 블루경제 발전 역량 강화 교육세미나 .....	4
2. RCEP 권역 해양경제 청년대화: 블루경제 파트너십 공동 구축 ..	24
3. 현지시찰 .....	27
III. 시사점 .....	31
1. 신산업 기회 실현을 위한 제주 해양경제 발전 정책 수립 .....	31
2. 제주 해양경제 육성을 위한 다국적 협력 기반 모색 .....	33

# I

## 출장개요

### 1 출장 목적

- 중국 하이난에서 2024년 3월 24일~30일 기간 개최되는 국제 교육세미나와 국제포럼 참석을 통해 해양경제 관련 다양한 이슈와 협력 방향 등을 학습하고 향후 해양경제 관련 제주의 대외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동 국제 교육세미나 및 청년대화 포럼 관련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함
  - 국제 교육세미나는 「제3차 RCEP 협력체계 하의 중국-아세안 블루경제 발전 역량 강화 교육세미나」란 주제로, 세부 주제별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진행함
    - 본 국제 교육세미나의 참석자 수는 약 80여명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3개 반을 구성하였으며, 24일 등록 이후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 기간 동안 실내교육 및 현지시찰 등 교육 과정을 제공함
  - 국제포럼은 「RCEP 권역 해양경제 청년대화: 블루경제 파트너십 공동 구축」을 주제로 중국 및 아세안 주요 국가 전문가들이 중국과 아세안 간 해양경제 관련 주요 현황과 협력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미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주요하게 해양경제가 대두되기 시작함을 고려하여, RCEP 체계 하에서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 현황과 기회 등을 학습하고, 중국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 등을 인지하여, 향후 제주지역 해양경제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고려 사항 등을 모색하고자 함

### 2 출장 지역

- 지역: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 3 출장자

- 제주연구원 관계자 1인
- 혁신경제연구부 이중화 부연구위원

## 4 출장 일정

일 자	방문국	주요일정
3. 24.(일)	한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45)한국 제주공항 출발 → (13:10)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도착 → (16:00)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출발 → (18:55)중국 하이난 하이커우공항 도착</li> <li>• (18:55~) 수하물 수취 및 숙소 이동</li> </ul>
3. 25.(월)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0~08:45) 개막식, 사회: 양루이 부원장(중국개혁발전연구원)</li> <li>• (08:55~09:50)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역사박물관 방문</li> <li>• (10:00~12:00) 강의-1 - 주제: 해양가치 인지와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및 촉진 - 발표자: 14차 전국인민대표, 광동해양대학교 교수 ning링(宁陵)</li> <li>• (14:30~15:50) 강의-2 - 주제: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글로벌 형세와 중국의 실천 - 발표자: 중국남해연구원, 해양법률과 정책연구소 소장 엔엔(闫岩)</li> <li>• (16:00~18:00) 강의-3 - 주제: 중국-아세안 녹색경제 일체화 - 발표자: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츠푸린(迟福林)</li> </ul>
3. 26.(화)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0:20) 강의-4 - 주제: 중국 해양목장산업 정책 해석 - 발표자: 중국개혁귀하오자유무역항법률연구센터장, 중국개혁발전연구원 법률 고문 리춘(李淳)</li> <li>• (10:30~12:00) 강의-5 - 주제: 중국 해양목장 발전 현황과 협력 기회 - 발표자: 하이난중국개혁귀하오자유무역항연구중심 부연구위원청멍커(程梦珂)</li> <li>• (14:30~18:00) 현지시찰 - 하이난 윈창 평지아완 현대 어업 산업 단지</li> </ul>
3. 27.(수)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00) 강의-6 - 주제: 인도네시아 항만의 디지털 발전 - 발표자: 인도네시아 국가 해양연구원 1대 원장 siswanto rusdi</li> <li>• (14:30~18:00) 현지시찰 - 하이난 상타이(翔泰) 어업 주식유한공사, 하이커우(海口) 신하이강 항만</li> </ul>
3. 28.(목)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00) 강의-7 - 주제: 말레이시아 해양산업 발전과 아세안-중국 협력 과제 - 발표자: 아시아태평양 일대일로공처회(亚太“一带一路”共策会) 회장 Ong Tee keat(翁诗杰)</li> <li>• (14:30~18:00) 현지시찰 - 하이난성환경과학연구원(海南省环境科学研究院), 하이커우 장동신구 디지털 혁신밸리(海口江东新区数字创意谷)</li> </ul>
3. 29.(금)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00) 강의-8 - 주제: 중국-아세안 어업협력 강화와 블루어업 전환 - 발표자: 중국수산과학원 전임 원장 리우잉제(刘英杰)</li> <li>• (14:30~17:30) 강의-9 - 주제: 현대산업체계 구축과 중국의 현대화 추진</li> </ul>

일 자	방문국	주요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중국해양발전기금회 부이사장 판신춘(潘新春)</li> <li>• (14:30~17:30) 강의-9</li> <li>- 주제: 현대산업체계 구축과 중국의 현대화 추진</li> <li>- 발표자: 중국해양발전기금회 부이사장 판신춘(潘新春)</li> <li>• (14:30~17:30) 폐막식, 사회: 판신춘</li> </ul>
3. 30.(토)	중국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8:00) RCEP 권역 해양경제 청년대화: 블루경제 파트너쉽 공동 구축</li> </ul>
3. 31.(일)	중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5)중국 하이난 하이커우공항 출발 → (12:35)중국 항조우 샤오산공항 도착 → (18:45)중국 항조우 샤오산공항 출발 → (21:35)한국 제주공항 도착</li> <li>• (21:50~) 귀가</li> </ul>

## 5 방문 기관 소개

###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위치: 中国海南省海口市秀英区长滨路东四街3号

<그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위치와 전경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이하, 중개원)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선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이며, 주요하게 ①개혁 연구, ②국제 협력, ③교육 훈련, ④정보 출판 등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최근 RCEP 타결과 함께 중국 하이난을 중국 남부의 개혁개방 선진지로서 역할을 가하기 위해 중개원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싱크탱크 협의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업 협력 및 미래 성장 동력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RCEP의 대외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내적인 교육, 즉 고위직 공무원, 실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실무 교육 역시 추진하고 있어, 하이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

## II

## 출장내용

### 1

## 제3차 RCEP 협력체계 하의 중국-아세안 블루경제 발전 역량 강화 교육세미나

### □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3월 29일(금)

○ 교육 : 9개 교육과정 및 현지시찰

- 강의-1: 해양가치 인지와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및 촉진
- 강의-2: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글로벌 형세와 중국의 실천
- 강의-3: 중국-아세안 녹색경제 일체화
- 강의-4: 중국 해양목장산업 정책 해석
- 강의-5: 중국 해양목장 발전 현황과 협력 기회
- 강의-6: 인도네시아 항만의 디지털 발전
- 강의-7: 말레이시아 해양산업 발전과 아세안-중국 협력 과제
- 강의-8: 중국-아세안 어업협력 강화와 블루어업 전환
- 강의-9: 현대산업체계 구축과 중국의 현대화 추진
- 현지 시찰지는 「①하이난 원창 평지아완 현대 어업 산업 단지, ②하이난 샹타이(翔泰) 어업 주식유한공사, ③하이커우(海口) 신하이강 항만, ④하이난성환경과학연구원(海南省环境科学研究院), ⑤하이커우 장동신구 디지털 혁신밸리(海口江东新区数字创意谷)」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됨

○ 장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회의실 및 주요 현지 시찰

○ 참고 : 강의실 휴대폰 반입 금지, 강의자료 스크린 확인 및 미제공

### □ 주요 연수 내용

강연	①강의-1, ②강연자: 광둥해양대학교 교수 닝링(宁凌)
주제	해양가치 인지와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및 촉진
요약	해양은 인류의 생존 문제이며, 중국정부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10대 요소를 고려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도전이 필요한 미래 신성장 동력 제고 방안을 모색함

- 중국은 2023년 양회 중 고품질 경제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해양경제는 핵심요소이며, 해양과학, 해양전략, 해양생태문명건설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중국의 해양경제발전은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강국건설 등 2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광둥성은 해양강성(强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양경제 관련 경제활동, 기초

설비, 금융, 네트워크협력, 데이터, 바이오, 자원, 원자력 등 측면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해양생태보호의 기준 조건에서 육지-바다를 연계한 체계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은 해양경제발전을 위해 10대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 공간배치는 최적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4개 구역 구분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간배치의 개발과 이용, 임해지역의 발전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자원은 해양생물, 해양광산, 해양화학, 해양공간, 해양에너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산업은 해양어업, 해양수산물가공업, 해양석유가스업, 해양관광, 해양염업, 해양 및 관련 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과학은 과학기술 혁신체계, 고품질 발전 및 동력강화, 해양목장 관련 주요 영역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금융은 해양산업 발전이 과학기술과 해양금융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동력이 제고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음
  - 일례로 심천 지역의 경우 해양금융 서비스가 기타 지역 대비 성장한 지역이라 함
- 해양문화는 지역의 해양과 관련된 제도, 문화, 음식, 관광, 정신 및 행위 등을 포괄하고 있음
- 해양생태환경은 기본적으로 「①바닷물 → ②해양생물 → ③해저침적물 → ④해양의 성분 및 부유물 → ①바닷물」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해양기초설비는 항구 및 교통, 에너지 개발 및 저장운송, 정보서비스 제공 플랫폼, 수원보장 설비, 재난 대응 설비 등을 포괄하고 있음
- 해양개발협력은 성(省)내 협력, 성(省)간 협력에서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으로 국가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해양종합처리는 국가 및 지역 간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축, 생산체계의 효율적인 응용, 정책체계의 융합 등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고려가 필요한 것은 해양경제발전이 육상경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육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시스템들이 해상에서도 체계적으로 연계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중국 광둥성의 해양경제발전 방향은 이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발전방향은 해양의 고품질발전을 지향하며, 발전원칙으로 「①생태우선-녹색발전, ②육해공동발전-구역협조, ③혁신동력-과학기술선도, ④개방통용-협력상생」을 들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6대 임무로 「육해총체발전계획 및 해양경제 공간배치,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현대해양산업체계, 해양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지원, 친환경 발전, 개방형 협력, 해양종합관리능력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b>강연자</b>	①강의-2, ②강연자: 중국남해연구원, 해양법률과 정책연구소 소장 엔엔(闫岩)
<b>주제</b>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글로벌 형제와 중국의 실천
<b>요약</b>	해양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해양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이며, 해양 관련 용어, 기술, 개발, 보호 등의 정의와 범위, 표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해양자원 범위는** 생물자원, 비생물자원, 해역자원, 광산자원, 자연환경자원, 해양 유산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유산자원의 개발 등에 있어서 협력 공간이 많이 존재하는데, 최근 해양유산자원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함
  - 해저의 많은 자원은 인류가 최후까지 보장해야 하는 자원으로 인류가 가장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며, 이곳에는 많은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음
- **해상의 공간 구역은** 내수지역, 영해(기선~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영해12해리~200해리), 공해(200해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
  - 공해 면적은 지구 면적의 43%정도 수준이며, 전체 바다 면적 중에는 64%의 비중을 점함
  - 공해를 둘러싼 국가간의 전쟁(예: 영국- 아일랜드)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전쟁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해양자원 활용 경쟁 및 기회 확대라 할 수 있음
- **국가간 해양협력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자원쟁취, 해양오염, 기후변화, 과도한 어획 및 채집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장애 요소별 특징을 고려하여 국가 간 해양과학부분은 어떻게 협력 발전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화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를 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더 나아가 국가별 해양영토는 내수공간, 영해기선, 영해공간, 배타적 경제수역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마다 해양 상의 권리는 동일한가? 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해에서 모든 국가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제한적인 자유로 판단되며, 환경보호를 준수하는 규정이 있어 국가 간 협력을 위해 필요시 되는 추가적인 법적 기준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일례로 저개발국가는 공해까지 나가서 새로운 기술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력이 낮기에, 공해에서 권한은 실제 강대국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함
- **결국 해상 공간을 구분하여,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조약 마련 등을 상호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해양경제의 국제 협력 수준 제고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임**

강연자	※강의-3, 강연자: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츠푸린(迟福林)
주제	중국-아세안 녹색경제 일체화
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해양경제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간의 정책적 이슈, 경제구조, 공동문제, 공동액션플랜, 신산업 일체화 발전 및 표준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호 발전적 환경을 조성해야만 함

- 중국과 아세안은 전면적 전략 협력 공동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 일체화를 중심으로 녹색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과 아세안이 협력발전에 기초가 되는 핵심사항으로 공동수요, 인도네시아 해상산업의 발전, 중국- 아세안 간 높은 교역 수준, 기술 협력의 기회 존재 등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음
  - 공동수요로 2030년 아세안 세계 4대 경제체 발전 기대, 아세안의 해양경제발전 필요성과 해양경제 동력 확대, 아세안의 넓은 해상 영토 등을 제시함
  - 인도네시아는 해양산업 발전 국가로 GDP 공헌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 해양산업의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중국은 세계 최대 어업 생산국으로 양식업은 세계 양식업의 60% 이상 비중을 점하고, 선박제조업의 생산액은 세계 중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생물의약품, 해양전력업, 해양이용업 발전 속도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임
  - 중국은 아세안 해양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술 협력자이며, 아세안 역시 중국과의 녹색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에 필요로 하는 해양어업 산업의 가치사슬과 공급사슬 등에 대한 정책적 마련 역시 모색하고 있어 양자 간 협력의 기회는 더욱 제고될 것임
- 양자 간 협력에 존재하는 문제로는 해양오염, 해양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임
  - 공동 해결 방안 과제는 해양 복원 및 보호, 도전적인 협력 과제 추진, 공동 비전 수립 등이 필요함
  - 해양 복원 및 보호로 손실된 규칙을 보완하고, 공간적으로 해양보호 및 복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도전적인 협력 과제 추진으로 남해지역의 위협 제거, 남해 주권 분쟁 해소 등을 모색해야 함
- 녹색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공동비전 수립을 통해 공간적인 녹색경제규모 확대 및 지역경제 공헌율 제고, 해양목장 중심형 신동력 확보, 해양환경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다원화된 공동시범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 및 시범사업 및 시범 제도 등의 추진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상의 심층적인 협력을 기초하여, 액션플랜을 추진해야 함
  - 해양어업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지속가능 발전체계 공동구축
  - 현실적인 추진이 가능한 해양어업개발과 보호 및 복원 규칙 수립
  - 해양어업협력 관련 정책기조와 조건 심화
  - RCEP 투자 허가 규칙 및 어업영역의 양방향 투자
  - RCEP 기술협력 규칙을 활용한 어업현대화 양식기술 서비스 무역
  - 해양어업가공산업사슬 공동 구축
- 특히 해상풍력분야 해양생물의약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아세안 해상풍력발전 공간 거대, 향후 10년 아세안의 해상풍력 발전량 6% 이상, 세계 평균수준보다 더욱 높아 해상풍력은 산업일체화의 중요한 방향임
  - RCEP 규칙을 이용하여 에너지공원구, 신에너지산업원구 등 에너지를 중점으로 공업항만 등을 만들어야 함
  - 해양생물의약을 중심으로 중국-아세안 신산업 일체화 방환으로 생물의약, 해양생물의약의 성과를 혁신하고 가치사슬 전환 등 발전을 모색해야 함
- 중국-아세안 해양기초설비 일체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항만협력 및 하이난자유 무역항 활용 등이 필요하며, 하이난은 10년 내 「해상-하이난」을 건설하고자 함
  - 개방 및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항만기초설비 건설협력강화, 중국-아세안 항만 동맹체계 구축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해상-하이난」과 관련하여 하이난의 양푸항(洋浦港)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추진 중임
- 일체화 발전이란 무엇인가 관점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허브로 하이난이 활용되어야 함
  - 하이난은 이와 관련해서는 18개 건의를 중앙정부에 전한 바 있음
  - 하이난은 중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생산요소 유통의 대 통로가 되고자 함
- 중국과 아세안의 정책적 협력 우수사례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일방향 개방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일방향 개방 정책의 의미는 말레이시아에게 동일한 개방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말레이시아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 것을 의미함
  -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개방정책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 비자기간 확대 등을 빠르게 조치하여 중국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중국과 아세안은 RCEP 관련 체결 조항을 통해 협력수준을 높여야 하며, 제도적인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해 RCEP 체결 조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력 및 공동의제화 등이 필요함

- 하이난자유무역항의 특수한 개방 정책은 중국 내 기업의 아세안 기업과 협력 및 거래에 있어 기여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의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 필요시, 하이난자유무역항의 개방 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피력함

강연자	※강의-4, 강연자: 중국개혁귀화오자유무역항법률연구센터장, 중국개혁발전연구원 법률고문 <b>리춘(李淳)</b>
주제	중국 해양목장산업 정책 해석
요약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을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의 현황과 기회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중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해양목장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에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목장산업 협력 기회를 제안함

-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중국 경제성장 관련 가장 높고 큰 정책이며, 기업의 생산과 비생산 등 관련 계획을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안정과 지속발전을 목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는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음
  - 순수한 시장 중심의 산업정책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진척되는 것이 아니기에 중국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별 안정적인 발전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산업정책은 중국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며, 주요하게 중국발전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국 내 산업분류는 세계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산업분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은 산업정책 통해 산업구조의 완비성을 높였음을 시사함
  - 산업구조의 완비성을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사슬을 고려할 때,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은 이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첫째, 무엇을 허가할 것인가?
  - 둘째, 무엇을 장려할 것인가?
  - 셋째,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
  - 넷째,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
- 일례로 중국의 심천에서 가공산업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음
  - 과거, 1978년 개혁개방 시기, 심천은 청바지, 화공용품 등 가공산업이 주력이었으나, 이제는 심천에서 해당 산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시기적인 필요성에 따라 지역별 육성 산업을 지원하고 신산업으로 산업전환 등을 모색하는 산업정책에 기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정보통신업 관련 산업에서 민간과 외국계 기업이 진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기업의 산업 진입은 산업정책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장 변화의 신호라 할 수 있는 것임
- 해양경제 일체화는 블루카본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유럽 국가 간에는 블루카본 관련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중국과 아세안은 해양경제 동맹을 체결하여 해양목장에 대한 발전 기회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력은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제 일체화는 3가지 중요 역할 및 기여가 예상됨
- 해양목장정책은 광업산업정책, 협업산업정책, 국가산업정책, 지방산업정책, 권역간 산업정책, 국내산업정책 등 6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실제 최근 세계어업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인의 식량 흡수량을 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홍육에 대한 수준은 서양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어류 등의 백육은 서양과 큰 차이가 있음
- 이는 국민건강에 단백질 흡수가 부족하다는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류 등 어획량 증가가 필요하기에 해양목장은 국민건강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부처간 장벽을 초월하는 신산업 발전을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중임
- 일례로 광둥성은 임해지역에서 해양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천은 해양환경 상 해양목장을 육성하기에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음
  - 광둥성의 해양 GDP는 산둥성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경제의 발전을 위해 2035년 해양 관련 목표 및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심천은 해양금융 체계를 통해 세계급 어업종자 발생지로서 발전하고자 하고 있으며, 곧 심천해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할 예정임
- 하이난은 구역적 산업정책으로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특징임
- 해양목장 관련 정책 사례로 이하 경우를 들 수 있음
  - 환경정책은 해양목장은 절대로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해양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 만약 더욱 많은 어류를 포획할 경우, 해양생물 사슬이 깨지게 되며, 해양목장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등은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 투자정책은 녹색금융을 이용해야 하는데, 중국 3대 정책은행은 해양목장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인, 세계인의 해양수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 평가되며, 향후 해양목장 분야 상장기업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함
  - 과학기술정책은 해양목장이 첨단기술과 연계되어야 하며, 일례로 무인해양목장, 인공지능 해양목장(위챗 등 활용)을 들 수 있음
    - 해양목장의 해저 길이는 약 20m~30m 수준인데, 과학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으며, 현재 중국해양목장의 과학기술수준이 세계급인 상황에서 국가급 국유기업과 소통을 했는데, 해양목장모델을 수출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음

- 국가별정책은 산업정책을 발개위에서 한다면, 국가별정책은 최소한 9개 부처에서 발표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치를 증진해야 함
  - 어떤 국가의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업혁명을 통해 노동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 국가 협력의 중요한 기회는 무엇일까? 등 관련 중요한 의미를 탐색해야 함
- 규정준수정책으로 절대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됨
- 인문정책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습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발전전략으로 해양목장의 산업사슬은 복잡하고 매우 길고 풍부함을 고려하여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함
  - 해양목장의 산업체계를 시작부터 끝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함
  - 중국은 현재 해양발전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제 관련 업종발전 촉진을 위해 해양금융을 촉진할 수 있는 은행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 과학기술 전환 강화로 과학기술은 산업과 업종에 이전되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산업규제, 산업구조, 산업체력, 산업협력, 산업과학기술, 산업인문 등 해양목장정책추세 역시 확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해양목장 관련 추진정책의 평가 등이 진행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체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해양목장 정책의 요점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 「산업정책추세 연구, 업종표준체계 구축 촉진, 우위해역 자원배치, 업종 발전전략 확립, 산업 발전요소의 협력적 체계 구축, 과학기술성과전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해양목장과 관련한 많은 인프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떠한 어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지속되어야 함
  - 하이난의 난판(南繁)은 농업분야의 종자 연구 등에 높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 어종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어종 확대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

강연자	※강의-5, 강연자: 하이난중국개혁개방자유무역항연구중심 부연구위원 청멍커(程梦珂)
주제	중국 해양목장 발전 현황과 협력 기회
요약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경제 협력강화는 경제, 기술,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과거 어업생산량 확대를 위해 서구지역의 유럽 국가들은 해양영토를 더욱 넓히기 시작함
  - 해외의 주요 국가는 3단계를 걸쳐 해양어업이 발전하고 있음
    - 초기에는 탐색을 통한 어획량 증가 시기로, 인공 부레 발전시기에 진입하였으며,

1971-1999 해양목장 건설, 2000-2020 생태상의 보호 진행 및 생태계 조성 등의 단계를 거침

○ 중국의 해양어업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됨

- 첫째, 어업량 확대를 통해 단백질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둘째, 1965-2000 인공 양식을 진행하였으며, 1979년 중국 광주에서 양식업을 진행함
- 셋째, 2000-2010년 기간은 2단계 발전 시기로, 초기적 발전성과를 연계하여 응용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함
  - 2006년 국무원은 해양목장 시범구 정책을 발표하기도 함, 2013년에 들어 명확한 해양목장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국가해양시범구 정책을 발표하게 됨
- 넷째, 2017-현재까지 기간은 중점발전 시기임
  - 2017년 집약적인 해양목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농업농촌부 3대 해양목장 유형을 발표함
  - 2024년 현재 빠른 발전 속에 여러 가지 신규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목장의 산업사슬을 고려하여 발전이 필요하며, 현재 산동성의 해양목장은 매우 많은 상황임
  - 2023년 9월, 전국 해양목장이 300개 이상임, 국가급 119개 해양목장임

○ 아세안 국가의 어획량은 대단히 많으며 라오스 이외 9개 국가는 해안과 인접한 상황임

- 해안선 길이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수준이며, 태국(태국만, 안다만), 필리핀(내하, 해협 등 존재), 베트남(6,000여 종 어산량 풍부), 기타 아세안 국가는 해안선이 짧지만 어획량 확대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 주요 국가의 해양산업 특징은 이하와 같음

- **말레이시아**는 양식 품종이 많고, 전통적인 어업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해지역의 어업작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어류가 존재하며, 정부차원에서 어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는 시정부 어업, 상업성 어업, 양식업 등을 추진하며, 양식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필리핀 정부는 어업 업그레이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태국**은 기타 국가 대비 어업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 주된 상황이며, 일련의 정책을 통해 해양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베트남**은 해수양식업이 주요한 상황이며, 생산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브루나이**는 GDP 중 어업 생산량의 비중이 낮음
- **미얀마**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나, 장비 및 설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업의 업그레이드 발전 방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수산업 양식업이 주요 형태

를 보이고 있음

- RCEP 국가간 해양목장의 산업 발전 범위는 이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체계적인 법률과 정책 부족
  - 산업기초 인프라 성숙도 부족
  - 생태와 건설 균형 부족
  - 건설과 경영자본의 부족
  - 고품질 산업 종사자 부족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개발수준 부족
- 아세안의 해수양식업은 일정한 발전을 하였지만 전통적인 어업방식이 주요인 상황이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 기술부족 등 문제는 생산비용의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생태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취약하여, 해수온도의 증가는 어업량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인공적인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문제는 어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해양목장의 건설은 심해지역 설치와 장비 설치 등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소형기업 등이 많아, 자금 부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 기초설비와 관리 수준 역시 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자체적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금 융통의 문제로 국가측면에서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의 발전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면, 이는 산업업그레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산업종사자는 어민과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급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등이 보완되어야 함
  - 과도한 포획 등은 어업량 감소 및 해양산업 발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줌
- 중국과 RCEP 체결국 간 해양목장산업의 기회는 「생태자원의 상호보완성, 산업사슬 상호연계성, 소비수요 관련성, 인구보너스 향유」 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생태자원 상호보완성**은 풍부한 어업자원, 고성장, 하이난과 아세안 간의 생태계 조건의 유사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하이난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며, 아세안과 함께 공동해역에서 협력적 양식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사슬 상호연계성**은 높은 국제화 수준을 통해 산업사슬 간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소비수요의 공동대응**으로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아세안 국가는 중국을 상대로 해양수산물 수출을 모색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공급은 중국에서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인구보너스 향유**로, 아세안 국가의 인구 증가에 따라, 젊은이가 많은데, 이러한 젊은 인재를 활용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활용이 가능함

- 젊은 노동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점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기술의 발전에 있어 신기술 교육양성 부문의 협력 역시 가능할 것임
- 이외에도 리스크 감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중국과 RCEP 체결국 간 해양목장 산업협력의 가치는 이하와 같음
  - 해양경제 협력체계 구축
  - 상생공동이익
    - 목표와 이익공유 모두 상생모델 방향으로 설정
  - 해양자원의 확대성, 유동성 고려
    - 초산업, 초국가의 협력 발전모델로 국가간 협력에 유용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음
  - 해양경제 산업협력의 낮은 민감도
    - 단백질 식습관 개선으로 식용물의 확대, 해양산물 증가 및 국민건강, 해양목장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
    - 해양목장은 1차, 2차, 3차 산업과 연계됨
- 중국과 RCEP 체결국 간 해양목장산업 협력의 도전과제는 이하와 같음
  - 협력영역 집중, 협력영역 확대 필요, 잠재적인 협력기회 발굴
    - 국가간 존재하는 발전 수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 간 높은 상호보완성에도 존재하는 발전격차로 인한 해양경제 및 산업에 존재하는 협력 장애요소를 고려해야 함
    - 이와 관련해서 통일적인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해역의 주권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 협력 메커니즘이 비교적 제한적이라 개선이 필요함
    - 현재 형성된 협력체는 국가 및 정부간 협력체에 중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부재하여, 실제 협력사업 추진 중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야 함
  - 기업의 참여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임
    - 중국의 해양목장 건설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정부 측면에서 추진되어 민간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함
    - 또한 정책의 불투명성 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시장주체와 초국가간 협력 및 투자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이익감소로도 연동되어 정보 제공의 방안이 필요함
  - 상호 혹은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 법적 기초가 근거가 되는 기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RCEP 체결국 간 해양목장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13년 해양목장 시범구 사업 추진 사례는 공익성 해양목장으로, 최근 몇 년 발전 시작함

- 현재 공익성 해양목장의 관리 방안과 공익성 해양목장을 경제성 해양목장으로 전환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관광과 연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해양목장을 무역영역이 아니라 수산물의 수출입, 가공의 영역 이상의 범위에 대하여 중국 현지 기업과 아세안에 함께 구축하고 아세안 현지의 노동력을 연계해서 협력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 역시 있음
  - 이러한 협력구조는 최근 무역보호주의 등을 해소할 것이며, 아세안은 중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협력과 기술이전 등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도 수산업 지원 및 보조금 등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해양목장의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중앙의 펀드, 보조금이 원양어업에 활용되고 있었는데, 몇몇 문제를 고려하여 해양목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환 및 활용되고 있음
  - 심천은 양식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태풍 등으로 인한 어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보험과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실제 태풍으로 인한 어민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평안보험 등 보험사에서 어업포획 획득 및 손실추계 방법을 통해 어민의 손실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해양목장은 비교적 긴 산업사슬을 갖고 있기에, 해양목장을 해수양식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산업사슬별 수익분배 및 불균형 해소, 기술 개선과 활용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모색해야 함
  - 해양목장의 양식업 범위를 넘어 양식업의 범위를 넘어 산업간 협력 모델 기회를 통해 생산량과 부가가치 증가 등을 모색해야 함
  - 해양목장의 건설 비용 등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을 초월하는 초산업간 협력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 이러한 협력을 위해 해양목장의 기술표준, 해산물의 기술표준 등에 대한 인증을 상호 진행할 필요가 있음

<b>강연자</b>	※강의-6, 강연자: 인도네시아 국가 해양연구원 1대 원장 Siswanto Rusdi
<b>주제</b>	인도네시아 항만의 디지털 발전
<b>요약</b>	인도네시아는 스마트항만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3개 정부 부문에서 동일한 플랫폼을 구축, 100개 민영 항만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중국의 선진 사례를 통한 정책적 문제 해소 등을 모색 중임

- 인도네시아는 스마트 항만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항만의 디지털화를 추진과 함께, 전자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4개 항만

에 대해 ADI, EDI 기술을 통해 적용함

○ 주요하게 수입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화 방식은 13개 정부 부문에서 국가 단일 창구 방식으로 관세청 업무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수입 과정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있음
- 실제 화물의 검사, 운송 등과 관련이 있는 13개 정부 부문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긴 소요시간 등이 문제였으며, 현재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항만 업무 중 디지털이 아닌 서면 서류 등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병행하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는 1만 5천여개 섬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전체 섬들의 항만에 까지 확장되지 않았으며, 섬간 수입은 디지털이 아닌 서류 문건을 통해 수입을 하고 있음
- 기술측면에서 항만네트워크 구축은 주요하게 2개 정부 부문(재정부,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와 격차가 존재하기도 함

- 수입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많은 문건과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낮은 체험으로 인한 복잡성 문제, 정부 간 관계 등 문제 모두를 고려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100여개 이상의 민영 항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민영 항만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항만 인근에 은행이 없거나, 은행의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 2일이 경과되어야 결제가 되는 등 통관처리 소요시간의 문제가 있기도 함

○ ENSW 시스템을 통해 공항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물류비용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GDP 중 물류산업은 약 20%의 부가가치를 발생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는 상황임

- 현재 단일 창구로 구성된 항만시스템은 물류플랫폼 2개를 아직 통합하지 못한 상황임
- 항만시스템은 항만이용 기업의 활용이 필요한데, 일반기업은 상무대리 회사를 통해 항만시스템을 간접 이용하는 상황이 존재함
- 석사·박사 규모 역시 낮아, 고급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일례로 홍콩 같은 경우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음,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모델로 추진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항만은 디지털 항만을 추진하지만, 1만 2천여개 항만 모두를 포괄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임

○ 광산물이 많은 지역은 석탄 관련 화물과 같이 중량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고 있어, 물류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소요시간 연장으로 물류비용 상승이 야기되고 이는 다시

수입상의 수입가격을 높이는 문제를 야기함

- 현재 16개 항만에서만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며, 교통부와 금융부의 협력하여 항만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아직 낙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기회가 매우 높은 상황임
- 다음 도전으로 불확정적인 제도, 정부 관계자의 관리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산업계획 중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의 의견청취 등 시간적인 소요비용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높은 리더쉽, 소통 능력 등 사례가 유용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 수도지역에서 많은 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전까지 추진될지에 대한 염려가 있음
- RCEP 체결을 통한 상호상통 환경 조성 중 아세안의 열약한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항만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술력 분석 및 교통 지원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항간 간 협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항만 도시의 협력**을 초기적인 단계로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됨
-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협력은 상호 교역수준을 넘어 정책상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항만 인프라 발전 및 산업간 연결 등이 필요함
  - 즉 기술이전 등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및 시장진입 시,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상호 이타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중국 정서 확산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임

<b>강연자</b>	※강의-7, 강연자: 아시아태평양 일대일로공처회(亚太“一带一路”共策会) 회장 Ong Tee keat
<b>주제</b>	말레이시아 해양산업 발전과 아세안-중국 협력 과제
<b>요약</b>	말레이시아는 국가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해양경제의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며, 말레이시아에 부족한 자금 문제를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해양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의 해양경제는 RCEP의 기회와 연계되어 발전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는 RCEP의 인식 정도가 다소 낮은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이 필요함
    - 한중일 3국은 상대적으로 해양경제에 대한 인식이 넓다고 사료됨
    - RCEP는 아세안에서 주동적으로 제창하였기에, 반드시 국제 협력의 기회로 활용 수준을 높여야 함
- 2019년(RCPE 체결 이전) 시기, RCEP 체결국가의 GDP 규모는 세계 GDP 중 약 29%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세계 거대 협정인 USMCA, EEA 등과 비교해서도 더욱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
  - RCEP 매년 2,090억 달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030년 RCEP는 세계무역 규모

5,00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RCEP 체결은 중국-아세안 양자 무역규모를 크게 증가시킴

- 2019년 6,315억 달러, 2022년 9,753억 달러 수준임

· 코로나 시기에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규모는 매우 크게 증가함

· 2020년 코로나 시기, 아세안은 유럽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동반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2009년 이후부터 아세안의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지위를 점하고 있음

- 아세안의 무역은 미국과 유럽을 벗어날 수 없으나,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명확해지고 있음

○ 아세안 경제발전의 잠재적인 동력으로 아세안의 넓은 해역 면적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세안의 66%가 해역 면적이며, 이는 전세계 해양면적의 2.5%의 비중을 점함

- 전세계 GDP 중 61%가 해양과 연안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함(내륙부터 100km 해안선 기준)

- 해양경제가 세계 중 8번째 거대 영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세안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매년 2.5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 이전 해양경제를 통한 취업자 수는 3,100만 여개 수준임

○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동반관계 비전 2030」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추진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할 것임

- 합작 영역으로 주요하게 어획, 양식, 해운, 물류, 항만건설과 관리, 해양관광, 해양 재생 에너지, 해양목장 등을 들 수 있으며, 협력 사례로 해양상품무역, 포획 및 양식업의 과학 기술 교류, 기술관리와 생산력 배양 등을 들 수 있음

○ 양식산업은 양자간 협력 중 이미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규모는 15.53억 달러,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 규모는 20.96억 달러 수준임

○ 아세안과 중국 간 협력의 전략과 도전으로 「①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작용 부족 해결, ②심층적인 협력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 주도, ③인도네시아를 제외한 ASEAN(인도네시아 제외)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해양경제 로드맵 구축 능력 부족, ④투자 자금 결핍, ⑤ASEAN 생산능력 구축 필수」 등을 들 수 있음

○ 2021년 11월 아시아발전은행(ADB)는 녹색자금허브라는 금융서비스를 구축하였는데, 2024년 3억 달러로 규모가 확정되었고, 여전히 투자자금은 부족한 상황임

○ 향후에는 중국-아세안 해양경제가 남해지역 해역 분쟁과 같은 정책적 분열의 열기를 해소하길 바라며, 아시아발전은행(ADB)은 어떻게 해양경제 관련 투자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RCEP 체계를 활용해야만 하며, 해양경제 협력과 관련이 있는 RCEP의 체결협정 활용 및 추가 협정 수립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해양경제와 관련하여 해양에너지, 인문교류 등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양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을 통한 자금 부족 문제 해결, 공동 인재 양성 과정 구축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강연자	※강의-8, 강연자: 중국수산과학원 전임 원장 리우잉제(刘英杰)
주제	중국-아세안 어업협력 강화와 블루어업 전환
요약	최근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대두되고 협력 발전의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수산업 관련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모색함

- 중국 전국의 어업개황을 살펴보면, 2020년 어업과 수산양식 총생산량은 2.14억톤에 달했으며, 2014년부터 양식형 수산물이 포획형 수산물의 양을 초과하기 시작함
- 더욱 좋은 생산품, 영양, 환경보존, 삶의 수준 제고 등의 블루어업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음
- 블루어업 관련 전환은 「①어떻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양식을 추진할 것인가?, ②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③어떻게 산업균형을 추진할 것인가?」 등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임
  - 공간과 물은 「①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②지역 분류, ③양식장 설계 및 수자원 관리, ④이동식 선박, ⑤해수심해대형 케이지 양식, ⑥벼·물고기 통합양식, ⑦염수양어, ⑧RAS(순환수조시스템), ⑨수경양식」 부분과 관련이 됨
  - 복지와 안전보장은 「①통합된 수질, 건강 및 급여 관리, ②예방접종, ③프로바이오틱스, ④약초 이용 치료, ⑤대안 항생제, ⑥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부분과 관련이 됨
  - 수요와 공급은 「①토착종/생물학, ②유전학과 번식, ③부모개체 양식 관리, ④선택양식/성장, 저항성, ⑤특정 병원균 무균 (SPF)」 부분과 관련이 됨
  - 영양과 급여는 「①영양과 흡수, ②사료 성분과 공급원, ③성분 발효, ④사료 및 조성, ⑤사료 제조, ⑥정확한 급여, ⑦효율적인 급여, ⑧신선한 먹이」 등과 관련이 됨
  - 에너지와 양질의 일자리는 「①책임있는 자원 활용, ②태양/풍력/파력 에너지, ③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④인공지능 AI 지원 작업, ⑤작업 공간 개선」 등과 관련이 됨
  - 마케팅과 추적관리는 「①블록체인 추적시스템, ②전자상거래, ③기록관리, ④인증서와 브랜딩, ⑤가공과 포장, ⑥저장 및 포장」 등과 관련이 됨
- 세계 100명의 전문가 협력이 발표되고, 돼지 등 홍육을 통한 단백질 흡수가 아니라 해양 양식의 수산물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 기회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 최적의 자원활용, 공업화, 영양 연구, 생물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활용, 공간계획 등이 필요하며, 실제 무역의 측면에서 수산물이 이미 보편적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어업의 발전은 세계어업의 생산증가방식과 구조전환에 기여를 함
  - 이는 중국이 아닌 국제기관에서 평가한 사항임
  - 중국의 양식업과 자연 어업 어획량은 약 4:1 수준이며, 이는 블루전환의 사례를 시사함
- 중국은 해양어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함
  - 2006년 중국수생생물자원보호및 양식 행동(中国水生生物资源养护行动)를 시작으로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진일보 최적화, 수산양식업 녹색발전, 수산물 설비 장비 능력 제고, 수산물 과학기술 지원 기여도 증가(2015: 58%, 2020년 64%)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 14·5 규획 기간 관련 방향을 설정함
  - 중국의 경제성장은 높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산업화의 발전을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중국의 많은 생산량은 국가간 거래를 통해 많이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보호 추세로 인해 장벽을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간 수출관로 개척으로 농산물, 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있음
- 어업은 아세안 국가의 중요한 기초산업으로 과거 중국에서 해양기술이 부족했을 때, 어업생태 환경이 많이 파괴됨을 고려하면, 아세안 역시 어업생태 환경의 훼손 여부 및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세안의 주요 국가별 수산업 발전 추세는 이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수산업 발전은 아세안에서 어업 발전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역시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국은 중국과 과학기술 협력 수준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산업구조전환 수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협력의 기초를 가지고 있음, 기본적인 협력수준 달성으로 향후 협력 기회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 이하와 같음
  - 브루나이: 심원해양양식
  - 태국: 순환수양식업기술
  - 캄보디아: 수산업농업 협력
  - 미얀마: 현대농업산업원
  - 필리핀 수산물양식시범산업
  - 브루나이 해수양식기술연구개발클러스터
  - 필리핀의 일대일로 구역양식 수산업협력 혁신시범기지
  -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경제 관련 학술적 교류 플랫폼 추진
-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경제 협력은 이하 조치가 필요함
  - RCEP 협정을 통한 협력 강화가 필요함
  - 기타 고려사항으로 해양목장의 위치는 전통적인 조업 작업 상에 위치할 경우 일반 어민의 어획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RCEP 체계를 활용한 수산업 국제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고 협력 기회를 증진할 것인가 등을 모색해야 함

<b>강연자</b>	※강의-9, 강연자: 중국해양발전기금회 부이사장 판신춘(潘新春)
<b>주제</b>	현대산업체계 구축과 중국의 현대화 추진
<b>요약</b>	중국 현대산업체계 구축과 현대화 추진 경험을 핵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경제적 성과를 소개하고, 이에 기반한 해양경제 관련 아세안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해양발전기금회 차원에서 펀드 지원 등을 통한 투자자금 지원 등 정책적 의지를 전달함

- 2023년 중국 중앙정부는 신시대 중국 정책, 경제정책 개선, 고품질 발전을 목표함
  -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은 현대 사업체계 구축으로 중국 산업화의 기본 상황 이해, 농업, 기획, 서비스업, 인프라, 기본적으로 주요 국정 및 실력, 미래 방향 설정 등을 모색함
  -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국 경제발전의 단계에 맞는 방향 설정을 추진함
  - 75년 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 중국은 생산능력이 없었으나 현재는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음
- 중국의 산업체계는 스마트화, 녹색화, 융합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완전성, 선진성, 안정성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화**는 신기술 활용, 투자의 쟁점이 되었으며, 동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녹색화**는 고품질 발전, 지속가능 성장, 자원제약, 환경보호, 생산방식, 생활방식, 저탄소 배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융합화**는 관련 산업 내 유기적인 연계, 산업체계 완전성 제고, 대규모 인구규모를 고려한 고품질, 고수준 세계적으로 이성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완전성**은 산업분류의 완전한 구비를 목적으로 산업발전을 육성하고 있음
  - **선진성**은 국내의 선진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정성**은 사고, 지리적 분쟁 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상태 수준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호적인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도 제고를 목적함
- 중국 현대산업체계 구축은 이하 과정을 거침
  - 중국현대화 산업체계 장기적인 개선 실현으로 현대공업, 핵심기업, 현대농업, 현대서비스업, 현대인프라산업, 기초설비쾌속발전, 혁신기초설비쾌속최적화, 과학기술능력 대폭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현대공업**은 공업 대분류 41개, 공업 중분류 207개, 공업 소분류 666개를 완비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공산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 2022년 중국의 57개 기업은 세계 2,500개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65개 제조업은 500개 글로벌 기업에 포함될바 있음, 이는 중국의 공업체계 완비 수준은 매우 높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부단히 제고되었음을 의미함
  - 이외에도 대형여객기 C919 비행이 성공하고 5G 기술과 설비 표준화 등 관련 특허 및 혁신기술은 이미 세계 선두 수준임
  -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2년 말 66개 국가 및 전략적 신흥산업군, 45개 국가 선진제조업군을 선정하여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기업 및 공업의 핵심경쟁력이 지속 증가하여, 100개 국가에서 포털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 및 관련된 기업이 357에 달하며, 200여개 주요 공업 상품은 이미 세계 선두 수준임
- **현대농업**은 농업의 현대화 추진으로 인구의 실업문제, 생산능력을 개선하고 있음
  - 8년 연속 1.9만억근 이상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는 이미 구축 되었으며, 농작물 생산의 기계화율은 73%, 약 10년 기간 동안 약 8억명의 농촌빈곤인구가 탈빈곤을 실현함
- **현대서비스업**은 2022년 중국 GDP 중 52.8%의 비중으로 공헌율은 41.8%에 달함
  - 신흥 산업분야에 대량 취업인구가 흡수되고 서비스업의 취업 역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무역 규모 역시 쾌속 증가 중임
  - 2022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6억 위안에 달하며, 서비스업의 생산과 소비가 최적화되고 있음
- **현대인프라산업**은 기초설비의 쾌속발전을 실현하며, 과학기술 능력 제고 등 성과를 실현하고 있음
  - 중국 내 교통망은 600만km가 초과되었으며, 220kWh 이상 수준의 전력망은 80만km를 돌파함
- 중국은 2012-2021년 기간 R&D 연평균 11.7% 증가, OECD 국가 평균 수준 4% 수준 초과, 중국국제과학핵심논문 2012년 13%, 2020년 20% 이상 수준, 디지털경제규모 전세계 2위 수준, 중국 첨단기술산업 세계 선두 사례<sup>1)</sup> 등등 선진사례를 창출함
- **중국해양산업**은 현대화, 신성장동력조성, 디지털경제·실물경제 융합촉진, 농업현대화, 고효율 서비스업 신체계 구축, 고품질 일대일로 협력 체계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북부해양, 동부해양, 남부해양 등 3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들 수 있음
  - 해양신흥산업으로 해양장비제조, 첨단스마트선박, 해양에너지, 해수담화와 혼합이용, 해양약물과 생물제품, 해양어업, 해양석유, 해양교통운송, 현대해양서비스업, 해양문화산업, 해양디지털경제 등을 들 수 있음
- 아세안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RCEP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1) 신에너지 자동차: 2022년 7월 2,000만대, 8년 연속 세계 1위, 리튬배터리: 세계시장 70% 비중 생산, 태양에너지 설비: 세계 시장의 80% 비중 생산

# RCEP框架下蓝色经济发展能力培训班（第三期）

The 3<sup>rd</sup> Training Seminar on Blue Economy Development Capability-building under the Framework of RCEP

中国·海口 2024年3月24-30日 Haikou, China March 24-30, 2024



※참고: 동 교육세미나로 진행된 9개 교육세미나 중 2개 강좌만이 휴대폰 지참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세미나 현장 사진을 첨부함

## □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30일(토) 09:00~18:00
- 장소 : 중국 하이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 주요 연수 내용

- 2024년 3월 30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중국해양발전기금, 중국일보사, 인도네시아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일대일로’ 공책회가 주최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RCEP 권역 해양경제 청년대화: 블루경제 파트너십 공동 구축” 포럼이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호주, 파키스탄, 한국 등 14개국의 지식계와 전문가 대표, 국내 관련 부처,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약 200여 명의 손님이 금번 대화에 참석함
- 하이난성 인민정부 천화우(陈怀宇) 부성장은 하이난을 “해상 하이난”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하며, RCEP 규정과 청년 인재를 활용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첫째, 하이난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해양 어업 등 전통 산업과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임
  - 둘째, 하이난자유무역항 정책과 RCEP 정책을 융합시켜 하이난-아세안 국가 연합의 해양경제 협력의 중요한 원동력을 형성할 것임
  - 셋째, 하이난은 국제적인 고수준의 경제 및 무역 표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해양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 할 것임
- 중국해양발전기금 이사장인 루빈(吕滨)은 RCEP의 공식 발효와 전면적인 시행이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함
  -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많은 협력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해 초국가인 메가 시장의 혜택을 공유하고 산업사슬 및 공급망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고 함
  - 중국과 아세안이 “일대일로” 구축을 계속 추진하는 배경에서 해양 협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해양경제 협력이 새로운 연장선에 있다고 언급함
  - 중국과 아세안이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동 탐구·논의해야 하며, 오랜 기간 협력의 유연성을 발휘해온 만큼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경제 발전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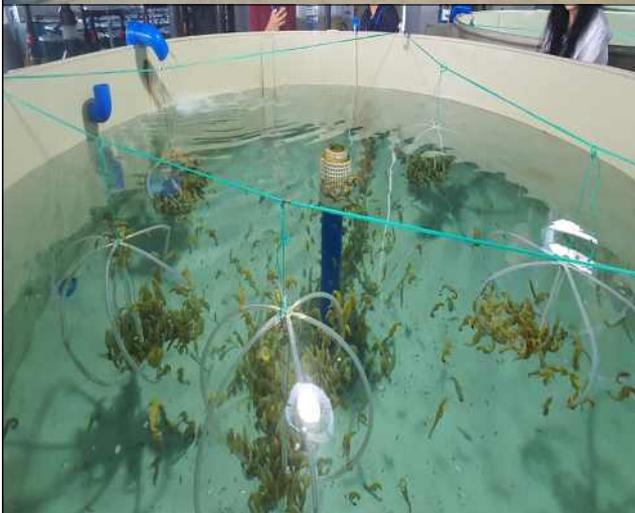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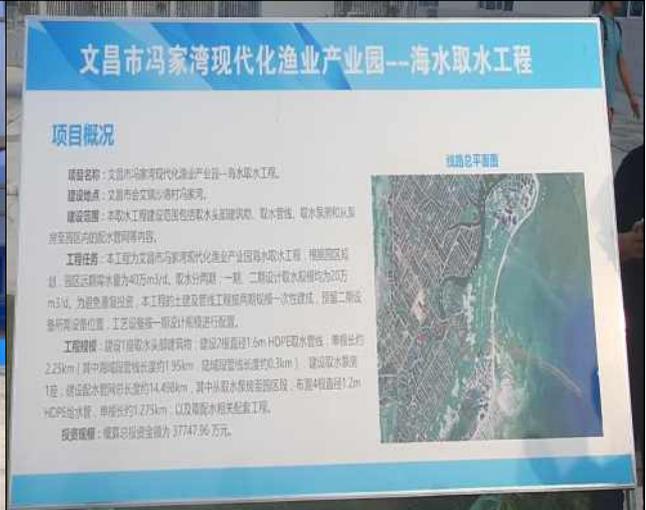
- **중국일보사 편집위원인 지타오(纪涛)**는 해양경제 협력 촉진이 국제사회의 공동 의제가 되었으며, 중국과 RCEP 권역 국가 간에는 운명공동체로서 해양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첫째, 해양 생태환경의 보호와 체계적인 보호가 시급함
  - 둘째, RCEP 지역의 해양 자원 발전을 위한 협력적 의견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인프라 및 협력 메커니즘 개선 등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이 필요함
  - 셋째, RCEP 체제 하에서, 체결국 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해양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일대일로” 공책회 회장인 Ong Tee keat**는 해양경제가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파트너십은 “중국-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2030년 비전”의 중요 목표 중 하나로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과 인민 생활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
  - 해양경제는 지역경제의 통합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 기반시설투자,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등 능력을 제고하여,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 연구센터의 집행주임 요셉 다림(约瑟·达瑞姆)**은 아세안은 중국을 포함한 RCEP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야 하며, 특히 해양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특히 RCEP에서 해양경제 발전 촉진 조항을 제정하고 시장 접근을 개방하여 서비스 및 장비 공유를 실천하고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활동을 규범화하는 등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중국기후변화사무특사 류진민(刘振民)**은 지역경제 협력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 해양경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세계 및 지역적으로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함
  - 해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해양 협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 협력에 미치는 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첫째, 국제, 국가, 지역 사회, 시민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해양경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해양경제 협력과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함
  - 둘째, 국가적인 차원의 해양전략을 재검토하고 완성시켜야 하며, 해양 가치에 대한 인식 재평가와 “관심과 이해 기반 상에서 해양을 경영” 해야 함
  - 셋째, 전 세계적인 해양의 위기관리 및 규칙 제도를 구축 강화가 필요함
  - 넷째, 아세안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환경 위기대응에 대한 협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 협력과 관리 모범을 형성해야 함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 츠푸린은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통합을 촉진한다” 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 해양경제 파트너십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실질적이고 특별한 노력이며, 해양경제를 주제로 중국-동남아시아 자유무역 네트워크와 통합 대시장을 빠르게 형성하는 것은 중국-아세안 종합 전략 협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밝힘
  - 중국-아세안 해양산업 통합, 해양기반 시설통합, 해양관광 경제통합, 해양생태 환경보호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 하이난자유무역항의 고수준 개방 정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힘
  - 해양경제 시대에 해양협력 발전에 중점을 두어 중국-아세안 해양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경제 협력 잠재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통합에 새로운 원동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3 현지시찰

- 하이난 원창 평지아완 현대 어업 산업 단지
-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4:30~18:00
- 지역 : 중국 하이난



□ 하이난 상타이(翔泰) 어업 주식유한공사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4:30~16:00

○ 지역 : 중국 하이난



□ 하이커우(海口) 신하이강 항만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6:00~18:00

○ 지역 : 중국 하이난





□ 하이커우 장동신구 디지털 혁신밸리(海口江东新区数字创意谷)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16:00~18:00

○ 지역 : 중국 하이난



### III

## 시사점

-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자유무역항으로 대표되는 하이난성은 RCEP 체계 하에서 아세안과 해양경제로 대두되는 다양한 미래 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해양경제는 다양한 산업 영역이 포함되는 영역으로 사전적인 협의와 시범사업, 공동발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함
- 중국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아세안 국가의 전문가 및 중국 내 다양한 지방정부 및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정책 방향과 기회를 소개하고 지속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본 교육세미나 중 전문가 강연과 하이난의 해양경제 발전 관련 현지방문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협력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였음
- 기본적으로 협력에 필요한 투자자금, 법적체계, 추진가능 사업, 협력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교육 및 협의 과정은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경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이하 내용은 교육세미나와 청년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제주에 필요시 되는 내용을 정리함

### 1 신산업 기회 실현을 위한 제주 해양경제 발전 정책 수립

- ① 제주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성, 활용성, 연계성 등 측면에서 필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육상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함
- 해양경제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보호 등 친환경적 조건이 만족된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 공간배치, 해양자원,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금융, 해양문화, 해양생태환경, 해양기초설비, 해양개발협력, 해양종합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경제의 발전은 육상의 경제활동이 해상 환경에 부합하게 연계 및 활용되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제를 더욱 다각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육상경제 구조의 특성 상 부족한 기능을 해양경제의 방향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더욱 보완하는 방안 역시 모색할 수 있음
  - 참고로 심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해양공간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능을 연계한 해양금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함
- 제주는 해양경제 관련 발전방향, 발전원칙, 임무설정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중국 광둥성의 경우 발전방향과 발전원칙, 6대 임무를 설정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② 해양영토를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등 해양영토로 구분하여 공간별 필요 사업을 구분하고 협력적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해양영토를 영해(기선~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영해12해리~200해리), 공해(200해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저개발 국가가 공해까지 나가서 새로운 기술과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공해 상의 권한은 강대국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③ 중국, 아세안 등 해외 연구소, 사업자, 언론기구 등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 공동발전 동력을 더욱 제고하고,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간 상호 소통의 기회를 더욱 높여야 함

- 제주는 해양경제 해외 협력체를 선정하고, 상호 이해 제고, 공동수요 창출, 관련 핵심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모색해야 하며, 공동의 도전과제 및 비전 등을 수립하여 해양경제 액션플랜을 구상하고, 신산업에 대한 발전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아세안은 2030년 세계 4대 경제체 발전이 기대되고, 해양경제발전 필요성과 경제적 기여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과 녹색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상호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해 제주와 해외 협력체 간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금, 해양오염 해소·해결, 해양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 문제를 도출할 수 있고,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해양 복원 및 보호 메커니즘, 도전적인 협력과제 발굴, 신성장 동력 제고 공동비전 수립, 다양한 공동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발전 등을 촉진해야 함
- 액션플랜의 예를 들자면 이하와 같음
  - 해양어업산업사슬공급사슬 지속가능 발전형 공동구축
  - 해양어업개발과 보호복원 규칙의 현실적인 수요
  - 해양어업협력 관련 정책기초와 조건 심화
  - RCEP 투자 허가 규칙 및 어업영역의 양방향 투자
  - RCEP 기술협력 규칙을 활용한 어업현대화 양식기술 서비스 무역
  - 해양어업가공산업사슬 공동 구축
- 신산업 발전 동력 제고로, 해상풍력, 해양생물의약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RCEP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 활용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RCEP 협정 추가로 인한 제주지역의 기회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의지 등을 명확히 하여 RCEP 협정 추가 관련 국가 간 협정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시 필요할 것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권한이양 등 관련 제도적 기준과 기대 성과 등을 연구 조사하고, 제주지역 해양경제 육성 관련 제도적인 기회와 추가 권한이양의 효과 등을 RCEP 체결안과 연계하여 모색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정책적 동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2 제주 해양경제 육성을 위한 다국적 협력 기반 모색

### ① 해양목장 산업 활성화 및 국제 협력을 통한 아세안+α 정책효과 확대를 모색해야 함

- 제주지역 해양목장(바다목장)의 추진 현황과 성과, 문제 등을 진단 및 개선 정책 등을 수립하여 국제교류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해양목장 사업을 아세안과 새로운 협력 통로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양식업의 대표 선진사례라 할 수 있는 해양목장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바다목장이라 불리는 해양목장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원인과 기회를 모색하고, 아세안과 새로운 협력의 기회까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해양목장 관련 정책을 광이적인 산업정책, 협의적인 산업정책, 국가적인 산업정책, 지역측면 산업정책, 권역측면 산업정책, 국내측면 산업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모색하였으며,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제주지역 바다목장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와 지역의 정책적 동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성과 창출 역시 도모해야 할 것임
  - 해양목장 관련 정책 유형은 환경, 투자, 과학기술정책, 국가별 정책, 규정준수정책, 인문정책 등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것이 해양목장 구축 중 기존 어민의 어업권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해양목장 관련 기술협력을 통한 상장기업육성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함

### ② 해양경제 및 어업발전 현황을 중심으로 제주와 협력국가의 상황을 진단하여, 협력기회를 높이고 협력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함

- 국가별 해양경제 및 어업발전 현황을 평가하여, 정책 노하우와 경제적 성과 등을 공유하여 해양경제 공동발전 수준을 높여야 함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등 국가는 풍부한 어종

및 해양자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와 투자규모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상황임

- 그럼에도 해양경제가 다양한 영역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제주의 아세안+ $\alpha$  정책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세안과 해양목장산업의 협력은 생태자원의 상호보완성, 산업사슬의 상호연계성, 소비수요 관련성, 인구보너스 향유 등에서 고려될 수 있음

-끝-